

여수상의 돈 선거 되풀이 조짐에 지역사회 거센 비판

제25대 의원·회장 선거 앞두고 추가 회원 투표권 허용 움직임 현 집행부 3년간 전 회장 고발로 검찰 수사... '악몽' 재연 우려

여수상공회의소가 제25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권선거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23일 여수상의 및 회원에 따르면 오는 2월 여수상공회의소 제25대 의원·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회원 사이에서 추가 회원 모집 및 추가 회비 납부를 양성화해 투표권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 집행부의 3년 임기 동안 전 회장에 대한 고발로 인해 검찰 수사가 이어진 가운데 돈 선거가 되풀이될 경우 사정 기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회원들의 추가회비 납부 등의 의견은 '돈 선거'를 막자는 대다수 회원의 뜻과 상반

돼 논란이 퍼질 전망이다.

앞서 여수상의는 지난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선거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회원 대다수가 과열 선거 방지 및 돈 선거를 막기 위해 추가 회원 모집과 추가 회비 납부 제한, 회비를 낸 신규 회원의 투표권 3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수상의 개혁을 원하는 회원사들의 뜻이 전반적으로 반영되면서 24일 정기 의원 총회 안건으로 올라 최종 결론지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선거가 임박한 21일 여수상의 유력 회원 일부가 머리를 맞대 '추가 회원 모집과 추가 회비 납부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답합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이 답합한 의도대로 추가 회원 모집은 24일 의원 총회 시 선거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능해진다. 선거규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선거방식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회에 개정 안건이 상정될 경우에도 참석 의원 다수가 추가 회원 허용에 찬성한다면 3년 전 여수상의 회장 선거 당시와 같이 추가 회비 납부와 회원 모집으로 투표수가 증가하게 된다.

여수상의는 2021년 3월 제24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추가 회비' 과열 납부 및 신규 회원 투표권 행사로 연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했던 대기업과 기업들의 투표권이 유명무실했던 전례가 있다. 여수상의 회장 선거권을 가진 의원(대의원)선거단은 총 40명(일반 35명·특별 5명)으로 구성된다.

당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은 1명당 40표 정도면 가능했지만 돈 선거로 인해 1인당 확보해야 할 표가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거센 비판을 받았다. 실제 추가 회비 납부로 투표권 수가 지난 23대 회장 선거 때 1660여 표에서 3년이 지난 당시(24대) 3800여 표로 2배 이상 늘었다. 늘어난 표는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표로 분석되면서 논란으로 이어졌다.

여수상의는 이런 전례와 혼탁 선거 의혹을 떨치기 위해 제25대 회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상임의원·집행부 간담회를 다섯 차례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돈 선거'를 경계했지만, 선거 직전에 지난 선거와 같은 움직임이 되풀이되고 있다.

여수상의 회원사 한 관계자는 "여수상의가 지난 선거 당시 이뤄진 금권 선거의 오명을 씻기 위해 그동안 간담회를 열고 수차례 돈 선거 방지를 외쳐왔지만, 실제 뒤에서는 답합을 하고 있다는 정

황들이 들려오면서 큰 배신감과 함께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소수 회원이 특정인을 선출하기 위해 추가회비 납부를 통한 추가 투표권 부여 방식을 악용하는 것은 회원들을 무시하고 여수상의를 지역사회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밝혔다.

실제 많은 회원사와 지역 경제계 등은 현 이용규 회장의 임기 내내 이뤄진 전 회장 고발로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여수상의가 '돈 선거·금권 선거'에 휘말리면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를까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1년 제24대 여수상의 회장 선거에서 추가 회비 50만원당 1표라는 점을 악용해 10억원의 추가 회비가 납부되면서 표가 급증했다. 당시 연 1억5000만원의 회비를 납부한 대기업이 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돈 선거'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 유일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고향 품 돌아올까

광양시 '제자리 찾기' 서명운동 고향사랑 기부금 1호 사업 선정

광양의 유일한 국보 문화유산인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이 100여 년만에 고향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광양시가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5만명 서명을 목표로 온라인(큐알코드)과 대면 서명 운동을 함께 벌인다.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찾으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다.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는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1호 기금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광양시민의 숙원으로 꼽혀왔다.

지난해 12월에는 70여 개 시민단체와 1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 선포식'을 열기도 했다.

올해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홍보 운동, 우리 문화유산 바로 알기 운동, 학술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광양시 출토 문화유산 가운데 유일한 국보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석등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반출돼 1932년 경북공 자경전 앞, 해방 이후 1959년 경주대, 1960년 덕수궁으로 옮겨졌다.

1972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뒤 지난 1990년부터 국립광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1992년과 2009년 광주박물관에 석등을 돌려줄 것을 건의하는 등 석등을 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광양시는 출토 문화재를 돌려받을 수 있는 중재 기구와 관계 법령이 없기에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석등 반환의 당위성을 알릴 방침이다. 석등이 다시 고향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원래 자리인 광양 중흥산성 성 안의 절터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

광양시는 출토 문화유산 중 유일한 국보인 석등에 대한 교육·체험·견학 등 문화재 활용사업을 펼칠 생각이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반출된 국보 강원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도 5년간 범시민운동 등 긴 여정 끝에 지난해 고향인 원주로 돌아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15만 시민들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광양 출토 유일한 국보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고흥군 '분청사기 미디어아트' 자문회의

9월13~10월6일 개최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오는 9월13일부터 10월6일까지 24일간 '2024년 고흥 분청사기 미디어아트'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지난 18일 박물관 강당에서 고흥 분청사기 미디어아트 1차 자문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내용,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냈다.

문화재청은 고흥을 포함한 전국 7곳에서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을 받고 있다.

미디어아트는 오는 9월13일부터 10월6일까지 기간에 분청 사적공원에서 운영된다.



'고흥 분청사기 미디어아트' 구성도.

분청사기를 소재로 화려한 도자 문화를 미디어 아트로 재현한다.

조대경 고흥군 부군수는 "우리 고흥의 대표 문화유산인 분청사기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행사에 지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보성군 '비만 탈출 갱년기 교실' 참여자 모집

보성군이 오는 29일부터 4월5일까지 40~64세의 체중 조절을 희망하는 갱년기 여성 20여명을 모집해 '비만 탈출을 위한 갱년기 교실'을 운영한다.

비만 탈출을 위한 갱년기 교실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예방하고 갱년기 증상을 한의약적 프로그램을 통해 완화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약적 갱년기의 이해 및 관리, 한방치료, 영양교육, 줘바댄스 등의 신체활동을 포함하며 프로그램 전후로 체지방 및 복부둘레 측정과 갱년기 증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한의사와 통합건강증진 전문 인력, 외부

강사의 교육을 통해 갱년기 여성의 증상 완화와 비만 예방을 위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 대상자는 지역 40~64세의 갱년기 유증상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사전평가를 거쳐 체중 조절이 필요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또는 읍면 보건지소로 전화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시 60세 이상 시민 치매 검진 전수조사

인지 저하자 판명뎌 검사비 지원

순천시는 올해 2년 연속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 전수 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치매 전수 조사는 치매를 조기 발견해 증증 치매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2만5235명, 올해 2만4573명 등 내년까지 3년에 걸쳐 7만4000명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순천시 치매안심센터는 원활한 검진사업을 위해 담당 부서를 2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경로당을 찾아가 검진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은 이후 인지저하자로 판정되면 치매 검사비(치매 진단비 15만원·치매 감별비 8만원)를 소득 제한 없이 지원한다.

치매 환자에게는 기저귀 등 조호물품, 치매 치료 관리비, 낮 동안 돌봄을 위한 쉼터 등도 지원한다.

순천시는 지난해 2만5235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벌여 치매 환자 568명을 발굴해 지원했다.

치매검진과 치매 예방 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치매안심센터(061-749-8888)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